

클린스만호, ‘또 다시’ 첫 승 도전…내일 운명 건 사우디전

부임 후 3무 2패…패배시 경질론 무게

5경기까지 無승 감독 클린스만이 처음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를 상대로 또 다시 첫 승에 도전한다. 클린스만호는 출항 이후 5경기에서 3무2패로 승리가 없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13일 오전 1시30분(한국시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사우디를 상대로 A매치 평가전을 치른다. 지난 8일 웨일스와 0-0으로 비긴 한국은 첫 승이 절실하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이후 A매치 5경기에서 3무2패로 승리가 없다. 3월 A매치 2연전에선 콜롬비아와 2-2로 비겼고, 우루과이에 1-2로 졌다. 6월에는 페루에 0-1로 패했고, 엘살바도르와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유럽 원정 첫 경기에서 웨일스를 상대로 첫 승 신고에 실패했다.

1992년 전임 감독제를 도입한 이후 5경기까지 승리가 없었던 지도자는 클린스만이 처음이다. 특히 클린스만 감독은 잦은 외유성 행보, 재택근무 이슈로 논란을 불렀다. 대표팀 감독의 임무보다 ‘클린스만’이라는 이름값에 축구계 유명인으로서 행보에 더 집중했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다. 실상가상으로 부진한 경기력과 첫 승이 없다는 결과까지 더해져 임지가 불안하다. 사우디전이 클린스만 감독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진다. 최근 라이벌 일본이 강호 독일을 4-1로 대파하면서 더 비교가 되는 상황. 앞서 영국 BBC는 클린스만 감독의 현 상황을

을 자세히 조명하며 “만약 웨일스, 사우디전에서 결과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마 클린스만 감독은 그가 원하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9월에 열리는 두 경기는 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지난 9일 코스타리카와 평가전에서 1-3으로 패했다. 데뷔전에서 패한 이탈리아 출신 명장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은 한국전에서 반등을 꾀하려고 할 게 유력하다. 사우디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54위로 한국(28위)보다 아래에 있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대다. 지난해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2-1로 꺾은 경험이 있는 팀이다. 역대 상대전적에선 4승7무6패로 한국이 열세에 있다. 만약 클린스만호가 사우디에 패한다면 감독 경질론에 급격하게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배



9월 A매치에 소집된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차두리 코치(왼쪽)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훈련 중에 상의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제할 수 없다.

뉴스

‘또 못 이긴다고?’…외신들, 사우디전 ‘무승부’ 예상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첫 승에 도전하는 가운데, 외신들은 무승부를 점쳤다. 클린스만호는 오는 13일 오전 1시30분(한국시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사우디를 상대로 여섯 번째 A매치 평가전을 치른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후 치른 5경기 동안 3무 2패에 그치며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2년 전임 감독제를 도입한 이후 클린스만 감독보다 승리가 늦은 감독은 아직 없다. 15군이 출전했던 지난 8월 웨일스와 0-0으로 비긴 A매치 첫 경기에서 승리가 예상됐지만 득점 없이 비기면서 이번 사우디전으로 첫 승 기회

클린스만 부임 후 5경기 꺾 무승 승리 없는 사우디도 간절한 상황

가 밀렸다. 승리가 연거푸 밀리는 데다, 클린스만 감독의 외유성 행보, 재택근무 이슈 등으로 경기 외적 잡음까지 더해지면서 사우디전이 분위기 반전의 마지막 기회로 굳어지는 중이다. 사우디도 승리가 간절하기는 마찬가지다.

로베르토 만치니 전 이탈리아 감독에게 지휘봉을 건넸지만 지난 9일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 1-3으로 졌다. 만치니 감독 역시 첫 승을 노리고 있어 치열한 한 판이 예상된다. 외신도 궤를 같이했다. 영국 매체 ‘스포츠몰’은 11일 0-0 무승부를 점쳤다. 매체는 “두 팀 모두 이번 A매치 기간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지 못했고 지난 4번의 맞대결 중 2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번 경기가 교착상태로 끝나는 건 놀

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한국이 웨일스를 상대로 우위를 잡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스포츠매체 ‘스포츠키드’도 무승부를 예측했다. 다만 1-1로 점수는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열띤 경쟁을 기대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승점을 나눠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양 팀의 역대 상대전적에서는 4승7무6패로 한국이 열세에 있다.

2위 KT~6위 두산 후반기 프로야구 순위 싸움 ‘점입가경’

[주간야구전망대]

NC, 2위 KT 턱밑까지 추격
KIA, 2위까지 도약 발판 마련
5위 추락 SSG, 재반등 노려
두산, 다시 5강 진입 정조준

KBO리그가 시즌 막판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여 재미를 더하고 있다. 1위 LG 트윈스(70승 2무 47패)가 독주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2위 KT 위즈(65승 3무 53패)와 3위 NC 다이노스(63승 2무 52패), 4위 KIA 타이거즈(60승 2무 52패), 5위 SSG 랜더스(62승 2무 54패), 6위 두산 베어스(59승 1무 57패)가 경쟁하고 있다. 연승 또는 연패를 할 경우 순위가 요동치고 있어서, 시즌 막판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주 6승 1패를 기록한 NC는 2위 KT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NC 에이스 에릭 페디는 지난주에만 2승을 올리며 선발진을 이끌었다. NC의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은 2.43에 불과했다. 손아섭은 4할 대 타율을 기록하며 NC의 공격에 앞장섰다. NC는 이번 주 롯데, KT, LG 등과 차례로 맞대결을 벌여 2위 도약을 노린다. 한때 1위를 노렸던 SSG는 최근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5위까지 떨어졌다. SSG 타선은 여전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슬럼프에서 탈출한 한유섭이 맹타를 휘두르며 타선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투수진이 붕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SSG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 1무 7패를 기록했다. SSG는 6위 두산에 3경기 차



10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3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LG 트윈스의 경기, KIA 선수들이 8대 7로 3연승을 거머쥐자 자축하고 있다.

로 추격을 허용했다. 베팅 끝에 몰린 SSG는 KT, 두산, LG와 차례로 맞붙는다. SSG는 오는 12일 두산전에서 에이스 김광현을 투입해 승리를 노린다. LG와의 주말 4연전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KIA는 2위까지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최근 14경기에서 12승 2패의 놀라운 승률을 기록하며 상위권을 위협하고 있다. 나성범은 최근 14경기에서 0.415의 고타율을 찍었고, 5홈런 19타점 15타점을 기록했다. 베테랑 김선빈도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KIA 에이스 양현종이 선발전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토마스 파노니는 최근 2연승을 올렸다. 파노니는 오는 12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연승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원투펀치 라울 알칸타라와 브랜든

와텔이 견재한 두산은 최근 중심타자 김재환의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양석환 역시 두 차례나 결승타를 터뜨리는 등 타선을 이끌었다. 지난 7일 KIA전에서 5이닝 무실점 호투를 선보인 최원준이 손가락 물집으로 1군에서 말소된 가운데 토종 에이스 곽병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박지국과 홍건희, 정철원이 최근 호투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든든하다. 하위권에서는 한화(50승 6무 62패)가 6연승을 달리는 등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화는 자력으로 포스트시즌 진출이 어렵지만, 경기 막판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는 등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즌 막판 가을야구 진출을 노리는 5강 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링센터 콜리세움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경기 1회 투구하고 있다. 류현진은 5이닝 5피안타(1홈런) 2실점 1볼넷 5삼진으로 호투했으나 타선 불발로 2-5로 패하며 시즌 2패를 기록했다.

류현진, 내일 텍사스전 출격…셔저와 선발 맞대결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일전에서 메이저리그(MLB) 현역 최고 투수로 손꼽히는 맥스 셔저(39)와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토론토는 12-15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텍사스와 홈 4연전을 치른다. 토론토는 텍사스와의 4연전 선발 투수로 크리스 베시, 류현진, 기쿠치 유세이, 케빈 고즈먼을 차례로 내보낸다. 류현진은 13일 오전 8시7분 열리는 텍사스전에 선발 등판한다. 텍사스 선발은 셔저다. 토론토에게는 이번 텍사스와의 4연전이 무척 중요하다. 가을야구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리즈가 때문이다.

아메리칸리그(AL) 와일드카드 순위에서 토론토는 80승 63패로 2위고, 텍사스는 78승 64패로 4위다. 와일드카드 순위 3위까지 포스트시즌 진출 티켓을 얻는다. 2위 수성을 노리는 토론토와 3위 이내 진입을 꾀하는 텍사스는 이번 시리즈에서 그야말로 결전을 벌일 전망이다. 류현진은 세 번째로 시즌 4승에 도전한다. 팔꿈치 부상을 털고 지난달 초 복귀한 류현진은 8월 14일 시카고 컵스전부터 같은 달 27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전까지 3경기 연속 승리를 챙겼지만, 9월에 나선 2경기에서는 승리 없이 1패만 떠안았다. 특히 직전 등판이었던 7일 오클랜드 애슬레

틱스전에서는 5이닝 5피안타(1홈런) 5탈삼진 1볼넷 2실점하고 패전을 떠안았다. 유독 큰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류현진이 이번 시리즈에서 ‘빅게임 피쳐’의 면모를 보일지가 관심사다. 류현진이 상대해야 할 텍사스 타선은 만만하지 않다. 텍사스는 11일 현재 AL에서 팀 타율 1위(0.266), 팀 득점 1위(777점)를 달리고 있다. 팀 OPS(출루율+장타율)에서도 0.791로 선두고, 팀 홈런은 200개로 5위다. 34홈런에 100타점을 올린 아들리스 가르시아가 가장 경계대상이다. 류현진의 LA 다저스 시절 동료이자 현재 팀 내 홈런 2위(30개), OPS 1위(1.050)를 달리는 코리 시거도 조심해야 할 상대다. 텍사스 타선은 주전급 선수 9명이 모두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는 등 장타력이 뛰어나다. 강속구보다는 제구력을 앞세우는 류현진이 한층 정교한 제구를 선보여야 텍사스 타선을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복귀 이후 4차례 원정경기 등판에서는 1승 1패 평균자책점 1.89로 맹활약했지만, 홈경기에서는 2승 1패 평균자책점 3.60으로 다소 고전했다. 피안타율도 원정(0.186)과 비교해 홈(0.259)에서 조금 더 높았다. 토론토 타선이 셔저를 공략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둔 7월말 뉴욕 메츠에서 텍사스로 트레이드된 셔저는 아직 이후 한층 안정감 있는 투구를 펼치고 있다.

역도 박민경, 세계선수권 여자 64kg급 합계 동메달

박민경(경북개발공사)이 2023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단 첫 합계 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민경은 1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대회 여자 64kg급 경기에서 인상 97kg, 용상 123kg, 합계 220kg을 들었다. 인상은 6위에 그쳤으나, 용상에서 1위를 차

지해 함께에서 3위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합계만 메달을 주지만, 세계선수권대회는 인상, 용상, 합계 모두 메달이 걸렸다. 한국 선수단에서 합계 메달을 딴 건 박민경이 처음이다. 앞서 남자 73kg급 박주호(고양시청)가 용상

은메달, 남자 67kg급 이상연(수원시청)이 용상 동메달을 딴 바 있다. 2021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회에서 이 체급 합계 3위에 올랐던 박민경은 개인 통산 두 번째 세계선수권대회 메달을 수확했다. 이 체급 합계 우승은 223kg(인상 101kg, 용상 122kg)을 든 콜롬비아의 나탈리아 야모사가 차지했다. 2위는 222kg(인상 100kg, 용상 122kg)의 루스 아요텔레(나이지리아)다.

뉴스